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5월에 미 제조 활동 빠르게 위축
- WSJ: 연준, 인플레이 외에 경기 둔화 걱정해야 한다
- Bloomberg: 미 소비자 지출의 주요 동력 한꺼번에 활력 잃어
- CNN Business: 고소득 소비자들도 할인 소매점을 더 이용한다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국채 상승... 미 제조활동 위축에 금리인하 가능성에
- Bloomberg: 트럼프 당선되면 연준 독립성에 리스크

[오일]

- WSJ: OPEC+, 내년까지 감산 연장 합의 ... 유가 상승 전망

[아시아 경제]

- WSJ: 아시아 제조업, 생산 증가 불구하고 비용 압박 심화
- WSJ: 중국 제조업 민간 지표, 2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며 공식 지수와 대조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젯블루, 매출 실적 감소폭 줄어 ... 여름철 강한 수요 덕분
- CNN Business: 엔비디아와 AMD, 대만서 차세대 AI 칩 공개 ... 인텔과의 경쟁 가열
- CNBC: 모더나와 머크, 피부암 치료용 백신 개선 효과 발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Factory Activity Contracts as Orders Slide, Output Weakens 5월에 미 제조 활동 빠르게 위축

- 미 제조 생산이 정체 수준에 가까워지고 제조 주문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5월 미 제조 활동이 빠른 속도로 위축됐다.
- 미 공급 관리자 협회(ISM) 제조 지수는 0.5포인트 떨어진 48.7로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오늘 월요일 밝혀졌다. 50 미만은 활동 위축이다.
- 신규 주문은 3.7포인트 하락해 지난 2022년 6월 이래 가장 낮아 5월에 45.4를 기록했다.
- ISM의 생산 지수는 50.2로 떨어졌다. ISM 제조 비즈니스 설문 위원회의 의장인 Timothy Fiore는 “현재의 금리정책과 경제 여건으로 인해 회사들이

투자에 인색해 수요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The Fed Might Soon Have to Worry About More Than Just Inflation 연준, 인플레이션 외에 경기 둔화 걱정해야 한다

- 미 경제 성장이 계속 약화되면서 정책 결정자가 우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계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인들 저축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인플레이션 조정 소비 및 가처분 소득이 4월에 비해 모두 0.1% 감소했다. BMO Capital Market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Scott Anderson은 4월의 저축률은 3.6%로 3월과 같은 상황이지만 지난 12개월 평균이 5.2%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와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시카고 비즈니스 바로미터는 4월에 37.9에서 5월에 35.4로 떨어졌다. 팬데믹 시기인 2020년 5월보다 낮은 수치다. 여기서 1분기 GDP가 1.3%로 낮아졌다.
- 경기 둔화 조짐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Key Engines of US Consumer Spending Are Losing Steam All at Once 미 소비자 지출의 주요 동력 한꺼번에 활력 잃어

- 그동안 매우 탄력적인 미국 소비자들의 주요 동력들이 한꺼번에 힘을 잃어 가계 수요에 대한 최근 둔화가 일회성에 끝나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작년에 실직 가처분 소득이 약간 상승했고 저축률은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미국인이 크레딧 카드와 다른 용자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 이러한 요인들이 4월에 실제 소비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나 식당,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줄게 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 일자리 시장도 둔화되면서 베스트바이 같은 회사들의 최근 수개월간의 판매 동향을 보면 쇼핑객들이 낮은 브랜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Even high-income Americans are shopping more at discount retailers

고소득 소비자들도 할인 소매점을 더 이용한다

- 최근 들어 미국인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고 있다.
- Bank of America에 따르면 고객들의 구매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크레딧 카드, 수요, ATM 인출로 측정되는 소비자들의 지불 활동이 작년 이래 3.5% 증가했다. 이는 작년의 10% 상승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준.
- KPMG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연 20만불 이상의 소득자 중 60%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65%는 올해 할인 쇼핑을 더 하겠다고 답했으며 14%는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ies Climb as Weaker US Output Gives Fed More Room to Cut

미 국채 상승... 미 제조활동 위축에 금리인하 가능성에

- 오늘 월요일 발표된 미 제조 활동 보고서로 인해 연준이 올해에 적어도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지면서 거의 한 주 동안 국채 수익률이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
- ISM 제조 활동이 축소되고 생산이 지난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0년 물 국채 수익률은 3일 연속 하락해 9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진 4.40%를 보였다. 이는 5월 23일 이래 가장 낮은 수치.
- 모건 스탠리 투자 메지번트의 글로벌 채권 최고 책임자인 Michael Kushma는 “채권 시장이 좋은 소식을 갈급해 하는 상황”이라며 “랠리를 할 이유를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 Trump Win Is Seen as a Risk to Fed Independence: Poll

트럼프 당선되면 연준 독립성에 리스크

-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치적인 간섭이 강화되어 연준의 독립성이 줄어들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최근 블룸버그 마켓 라이브 퍼스 설문 결과 밝혀졌다.

- 응답자의 40%가 트럼프 재임 시 그가 연준을 정치화하려고 하거나 연준의 파워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연준이 자율성을 잃을 가능성이 40% 정도 된다는 것.

Bloomberg 기사

[오일]

WSJ: OPEC+ Agrees to Extend Production Cuts in Bid to Boost Oil Prices OPEC+, 내년까지 감산 연장 합의 ... 유가 상승 전망

- OPEC+가 유가를 올리기 위해 감산 연장에 합의했다. 일요일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모든 오일 생산량 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미국 대선까지 유가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합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경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국영 석유 기업의 대규모 주식 매각을 시작한 날에 이루어졌다.
- OPEC+는 기존에 하루 3백66만 배럴을 감축해 왔으며, 새로운 합의에는 아랍에미리트가 공식 생산 쿼터를 하루 30만 배럴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WSJ 기사

[아시아 경제]

WSJ: Cost Pressures Cast Shadow Over Asia's Fledgling Manufacturing Recovery

아시아 제조업, 생산 증가 불구하고 비용 압박 심화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제조업체들은 생산량과 주문이 증가하면서 기 반을 다지고 있지만, 비용 압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 S&P Global의 구매관리자지수(PMI) 데이터에 따르면 2분기에 한국, 중국 과 같은 산업 강국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 중국, 대만의 5월 제조업 PMI는 모두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긍정적인 성장 신호와 함께 비용 압박도 증가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해외 시장의 수요 증가로 신규 수출 주문이 1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비용 부담도 커졌다. 제조업체들은 가격 일부 인상분만 소비자에 전가해 마직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HSBC의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Maitreyi Das는 말했다.

WSJ 기사

WSJ: China Caixin PMI Signals Faster Manufacturing Growth in Contrast to Official Gauge**중국 제조업 민간 지표, 2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며 공식 지수와 대조**

- 5월 중국의 제조업 민간 지표가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되며 공식 지수의 예상치 못한 위축 신호와 대비되었다.
- Caixin 미디어와 S&P Global이 월요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Caixin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4월의 51.4에서 5월 51.7로 상승해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이 수치는 중국이 7개월 연속 경기 확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지난주 발표된 공식 지수가 4월 50.4에서 5월 49.5로 하락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 수치의 차이는 조사 대상의 차이 때문일 수 있는데, 공식 지수와 달리 Caixin PMI는 소규모 기업을 더 면밀히 추적한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Bloomberg: JetBlue Sees Smaller Drop in Revenue on Robust Summer Demand****젯블루, 매출 실적 감소폭 줄어 ... 여름철 강한 수요 덕분**

- 젯블루의 이번 분기 판매 실적은 항공사가 운영을 개선하고 “건전한 전반적인 수요 추세”를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 월요일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매출은 작년에 비해 6.5%~9.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전망치인 10.5% 감소보다 줄어든 수치이다. 애널리스트들은 8.4%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 수정된 전망은 플로리다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쟁 심화로 요금을 낮춘 젯블루에게 긍정적인 신호이다. 또한 젯블루는 연방법원에 의해 스피릿 항공 인수에 실패한 이후 항공편 운항을 강화하고 운영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Nvidia and AMD unveil next generation AI chips as competition heats up

엔비디아와 AMD, 대만서 차세대 AI 칩 공개 ... 인텔과의 경쟁 가열

- 인텔과의 3파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AMD가 대만에서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을 각각 출시했다.
- 엔비디아의 CEO Jensen Huang은 일요일, 2026년에 가장 진보된 AI 칩 플랫폼인 '루빈(Rubin)'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빈은 데이터 센터용 칩을 공급하는 블랙웰(Blackwell)의 뒤를 잇는 플랫폼으로, 지난 3월에 발표되었다.
- 한편, 월요일 AMD의 CEO Lisa Su는 타이베이에서 자사의 최신 AI 프로세서와 향후 2년간의 신제품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는 차세대 MI325X 가속기가 올해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N Business 기사

CNBC: Moderna, Merck say vaccine improved survival in patients with deadly skin cancer

모더나와 머크, 피부암 치료용 백신 개선 효과 발표

- 월요일에 모더나와 머크가 피부암 치료를 위한 실험용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3년간의 데이터를 발표했다.
- 이 백신은 머크의 키트루다(Keytruda) 치료제와 함께 사용되며, 중간 단계의 연구에서 피부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오래 지속되는 효능을 보였다. 모더나와 머크는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 회의에서 이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 백신은 모더나의 중요 제품 중 하나로, 작년에 백신에 대한 수요 급감 이후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CNBC 기사

"미 세일업계 몸집 키우기 경쟁...M&A 시장 267조원 규모로 급성장"

"소수 대기업 위주로 업계 지형 변화..."규모확장 경쟁 계속될 것"

미국 세일업체들이 몸집 키우기 경쟁을 벌이면서 인수·합병(M&A) 시장이 약 2천억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수천 개 소규모 업체가 난립했던 미국 석유·가스 업계는 소수 대기업이 지배하는 구도로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지난해 7월부터 엑손모빌, 셰브론, 옥시덴털 페트로리엄 등이 발표한 세일업체 M&A 거래액이 1천940억달러(267조원)에 달한다고 컨설팅 업체 리스타드 에너지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